

자동차세 과세 기준, 내년 상반기 중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안

**행안부-지방세研,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 본격 운영
가격·환경요인 반영 못한 채 수십년 방치...내년 입법
작년 자동차세 4.8조...“전체 세수 늘지 않도록 설계”**

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다. 현행 배기량(cc)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 재산 가치 산정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국민의견에 따른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세수 부족에 직면한 정부가 우회적으로 증세에 나선 것이라는 일각의 분석도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정책 설명회에서 내년 상반기 자동차세 세부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을 보면 행안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꾸린다. 추진단은 조영진 행안부 지방세제국장을 단장으로 하며, 산하에 총괄기획팀·데이터분

석팀·대외협력팀 등 3개 팀을 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국민 세 부담 변동, 과세 형평성, 지방자치단체별 세수 변화,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영향, 친환경 정책과의 일관성, 한미 FTA 준수 여부 등을 분석·검토하기로 했다. 필요 시 개편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도 실시한다.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기준별 과세 구간, 세율, 적용 대상, 시행 시기 등을 담은 세부 개편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지방세법 개정안으로 내신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실이 지난 13일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자동차세 부과 기준

을 차량가액 등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1일부터 21일까지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을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서는 총 투표수 1693표 중 86%인 1454표가 배기량 기준 개선에 찬성했으며, 배기량의 대안으로 차량가액 기준을 꼽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현재 국민은 보유 차량 대수마다 매년 지방세로 자동차세를 낸다. 1990년부터 배기량에 따라 영업용은 cc당 18~24원, 비영업용은 80~200원을 부과하고 있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수소차는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해 영업용은 2만원, 비영업용은 10만원 정액을 부과한다. 자동차세를 처음 설계할 때 배기량에 비해 차 가격이 높은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기술 발전으로 배기량이 적어도 성능이 좋은 차가 늘었다. 특히 엔진이 없어 배기량을 따질 수 없는 전기차가 확산하면서 자동차세 논란이 불붙었다.

판매 가격이 1억3000만원에 이르는 테슬라 모델S 전기차 소유자는 매년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3만원의 자동차세를 낸다. 반면 배기량 3500cc의 제네시스(판매가 6000만원) 소유자는 연간 세 부담액이 90만원에 이른다. 출고 가격은 테슬라 모델S가 2배 이상 높지만 세금은 86% 가량 덜 내는 것이다. 가격이 훨씬 비싼데 오히려 세금은 덜 내는 모순이 생긴 것이다. 이 때문에 매년 자동차세 연납 시기가 도래하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되풀이돼 왔지만 30여년째 규정은 제자리였다. 최병안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동차세는 국민 민감도가 매우 높은 만큼 다양한 대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각계각층 의견을 반영해 세부 개편안을 만들고 입법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매긴다. 대형차가 많아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매길 경우 일본·유럽 차 대비 불리해서다. 환경을 중시하는 독일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경차 대국’으로 불리는 일본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되 경차에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 그러나 차값에 따라 자동차세를 매기는 식의 개편은 사실상의 증세로 보는 시각이 많다. 게다가 전기차 세금만 큰 폭으로 오를 경우 친환경차 확대 정책과 충돌한다.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국민참여토론에서도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로 ‘현행 유지’를 제시한 비율이 12%나 됐다. 정부는 증세 없이 현행 세수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자동차세는 4조 7926억원이 걸렸다. 조영진 행안부 지방세제국장은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매기다보니 차값이 저렴하더라도 오히려 세금은 많이 내는 형평성의 문제가 생겨났다”면서 “자동차세 개편으로 개별 납세자의 부담이 늘 수는 있겠지만 전체 세수가 증가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변영일 기자**

기아, 광주에 ‘플래그십 스토어’ 개관...“윈스톱 복합 거점”

차량 관람부터 브랜드 체험까지 윈스톱으로 가는



기아가 비수도권 지역 최초로 광주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개관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주 플래그십 스토어는 서울 강서, 인천, 경기 부천에 이은 기아의 네번째 플래그십 스토어로 차량 관람부터 브랜드 체험까지 가능한 윈스톱 복합 거점이다. 광주 플래그십 스토어에는 디지털 기반의 다양한 브랜드 체험 콘텐츠를 마련할 예정이다. 기아 플래그십 스토어 홈페이지에서 상담

예약 시스템을 통해 예약하면 대기없이 현장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예약 시 관심 차종을 입력하면 맞춤형 상담까지 가능하다. 첨단 전자 보조 시스템(ADAS)을 경험할 수 있는 ‘뉴 테크 시뮬레이터’와 차량 선택 사양을 직접 조합해 가상으로 제품을 구현할 ‘3D 컨피규레이터’, 모든 외장 색상을 태블릿PC로 비교할 수 있는 ‘디지털 컬러 컬렉션’ 등도 확보했다. 아울러 ‘기아 픽업 라운지’에서는 신차

출고 고객에게 차량 공개부터 품질, 과정 검사까지 설명한 뒤 신차를 인도한다. 차량 성능 체험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한 지역 특화형 시승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차량 2열에 앉아 승차감을 느낄 수 있는 ‘투어 시승’과 함께 오토랜드 광주의 주력 생산 차종, 연형 등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다.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고객들을 위해 플래그십 스토어 내부에 설치된 현대차그룹 전기차 충전소 ‘E-pit(이피트)’에서 직접 충전 있는 전기차 시승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외에도 동승 시승, 비동승 시승, 야간 시승, 패밀리 시승 등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시승을 즐길 수 있다. 기아는 광주 플래그십 스토어 개관을 기념해 오토랜드 광주의 대표 생산 차종인 스포티지의 30주년 특별 전시를 진행한다. 1993년 출시된 스포티지 1세대와 올해 선보인 스포티지 30주년 에디션 모델 차량을 내달 15일까지 전시하고, 세대별 스포티지 모델의 변천사를 담은 디지털 전시도 함께 운영한다. 광주 플래그십 스토어 운영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며, 오후 8~10시에는 야간 무인 매장으로 가동해 자유롭게 전시장을 방문할 수 있다. 기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아가 제공하는 미래 지향적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각 거점의 위치 특성까지 고려해 체험 콘텐츠를 더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슬비 기자**

아파트 전셋값 지난달 0.24% 상승 전환

올해 아파트 전세거래 늘었지만 빌라는 27% 줄어

올해 하반기 들어 역전세 우려가 다소 누그러진 가운데 주택 유형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락세를 보이던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달 상승 전환했지만, 빌라(연립·다세대)는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올해 7월까지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지만, 8월 0.24%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반면 빌라 전세가격은 8월에도 0.05% 하락하면서 올해 누적 변동률만 -2.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전세가격도 아파트는 상승세를 보였지만, 빌라는 하락하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8월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46만원 오른 2억8682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 빌라 평균 전셋값은 전월 대비 5만원 하락한 1억4508만원으로 집계됐다. 거래량도 차이를 보인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2년 1~8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10만933건인데 올해 1~8월 10만5440

건으로 늘었다. 반면 빌라 전세거래량은 지난해(1~8월) 6만 3165건에서 올해 4만5885건으로 27.4% 감소했다.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 5월 이후 매매가격이 반등하면서 동반 상승하기 시작했다. 또 연초 5~6%대였던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가 3~4%대로 내려오면서 월세에서 전세로 회귀하는 수요가 늘었고, 낮아진 가격에 갈아타기 수요가 맞물리면서 전셋값이 회복됐다. 반면 전세 사기 등 전세 보증금 반환사고가 집중된 빌라의 경우 여전히 리스크가 이어지면서 거래량이 줄고, 전셋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도 비(非)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보증금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회복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KB부동산은 “비아파트는 전세 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집중되고, 수도권 신규 아파트 입주 대기 물량도 증가해 전세 시장 회복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오유나 기자**

페르노리카 코리아, ‘발렌타인’ 등 위스키 선물세트 출시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추석을 맞아 위스키 선물세트를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정교한 블렌딩 기술력과 차별화된 풍미가 강점인 고숙성 블렌디드 위스키에 한국 전통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의 패키지를 더했다. 이 외에도 싱글몰트 위스키, 하이볼로 즐길 수 있는 글라스로 구성된 스페셜 패키지 등으로 선택의 폭을 넓혔다. 발렌타인은 추석을 맞아 마스터즈부터 12년, 17년과 발렌타인 싱글 몰트 글렌리벳 12년, 15년, 18년까지 총 6종 세트를 준비했다. 특히 자연산부터 고연산까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가격대 제품으로 구성했다. ‘발렌타인 17년’은 장수를 상징하는 소나무를 전면에 배치해 고급스러운 패키지와 하드 케이스 등을 적용했다. 한국만을 위해 마스터 블렌더가 특별히 블렌딩한 ‘발렌타인 마스터즈’는 조각보 기법의 가리개 문양을 더한 패키지로 한국적인 요소를 강조했다. 로얄살루트는 추석을 맞아 대표 라인업 21년 제품을 앞세웠다. 로얄살루트 21년 시그니처 블렌드, 로얄살루트 21년 몰트 등 대표 제품과 최근 출시한 한정판 ‘로얄살루트 21년 조드 푸트 몰트 에디션’까지 다양한 제품으로 구성했다.

로얄살루트·더 글렌리벳 등 다양한 라인업으로 구성



브랜드 첫 몰트 블렌디드 위스키인 ‘로얄살루트 21년 몰트’는 개성 강한 몰트 풍미를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스페셜 패키지로 제공한다. 스코틀랜드 5개 지역을 대표하는 몰트 원액을 최소 21년 이상 숙성에 블렌딩한 로얄살루트 21년 몰트는 시트러스 계열의 달콤한 풍미를

낸다. 더 글렌리벳은 모던한 컬러와 스타일리시한 아트웍이 조화를 이룬 추석 선물세트 패키지를 선보였다. 이번 선물세트는 더 글렌리벳 12년과 파운더스 리저브 두 가지 라인업으로 구성했다. **서선욱 기자**

삼성전자 ‘비스포크 제트’ AI 신제품 출시

‘고온 세척 브러시’ 적용...55°C 이상 물 직접 분사

삼성전자가 55°C 이상의 고온수로 물걸레 청소까지 할 수 있는 무선 스틱청소기 ‘비스포크 제트 AI’ 신제품을 20일 출시했다. 신제품은 기존 제품의 강력한 흡입력과 다양한 편의기능은 물론, ‘고온 세척 브러시’를 적용해 물걸레 청소 성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고온수를 스프레이 형태로 직접 오염물에 분사해 상온수로 제거하기 어려웠던 찌든 때까지 청소할 수 있다. 청소기 분체 우측(+) 버튼을 누르면 고온수가 분사되고, 좌측(-) 버튼을 누르면 일반 물걸레 청소로 전환돼 상황에 맞춰 사용할 수 있다. 고온수의 초기 예열 시간은 20초다. 대용량 배터리 사용 시 최소 50분 이상 이용할 수 있다. 브러시 상단의 예열 표시등으로 예열 상태를 직관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브러시 전면에 추가된 LED 라이팅으로 가구 밑처럼 어둡고 좁은 곳도 편리하게 청소할 수 있다. 비스포크 제트 AI는 최대 280W(와트)의 강력한 흡입력과 청소 환경까지 알아서 인식해 최적의 청소 모드를 설정하는 ‘AI 모드’를 적용해 국내에서 호평 받았다. 무선 스틱 청소기로는 최초로 국내에서 AI+ 인종, 글로벌 평가 기관 UL로부터 AI 검증을 받기도 했다.



또 ▲회전 사이클론으로 말려있는 긴 머리 카락까지 말끔하게 비워주는 ‘청정스테이션+’ ▲세균 번식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항균 다회용 물걸레포와 항균 물통 ▲청소기 스스로 상태를 진단하는 ‘스마트 자가진단’ 등 다양한 편의기능으로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비스포크 제트 AI는 새틴 그레이지·새틴 베이지 2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출고가는 사양에 따라 154만9000~174만9000원이다.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이준화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강력한 흡입력은 기본이고 자동 먼지 비움 시스템과 AI 기능 등 다양한 혁신 기능을 청소기에 발 빠르게 적용해왔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가사 수고를 덜 수 있는 스마트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